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과 교수

결국 대통령이 나선다. 시작은 휴가 중인 대통령의 "냉장고 냉동 탐차를 무제한 공급하라"는 지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께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정부 비상대책반이 구성됐다"며 "대통령님의 긴급지시로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모든 행사 운영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다. 대통령의 지시는 이어진다. "식사의 질과 양을 즉시 개선하고 관광 프로그램을 추가하라."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폐영식 후에도 출국할 때까지 숙식과 교통 문화 체험 등을 지원하라"고 말한다.

종교칼럼



최현열
광주 은교회 담임목사

딸이 군산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2021년부터 나는 광주에서 군산을 오고 가는 일이 잦다. 기속사 생활을 해서 학기 시작하는 때와 끝나는 때는 짐을 실어 날라야 했고 가끔 주말에 집에 오면 학교까지 태워주곤 하였다. 서해안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부안을 지날 즈음 도로가에 눈에 띄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를 알리는 옥외 광고판이었다. 그 광고판을 볼 때마다 어릴적 추억도 새록새록 돌아오고 일가에 미소가 생길 정도로 기대가 되었다. '나도 그곳을 미리 한 번 가볼까' 생각을 할 정도로 많은 관심이 있었다. 그리고 멋진 잼버리가 되기를 기원하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만 명의 청소년들이 찾아와 야영을 하며 교류하고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한국의 멋진 모습과 준비에 놀랄 것이라 생각했다.

기 고



민태홍
전 중앙공원1지구 주민협의회 회장

작년 가을 광주시 서구 중앙공원으로 산책을 갔을 때 기억이다. 풍암저수지 주변으로 '풍암호수와 장미공원 원형보존, 매립과 이전 절대 반대', '풍암호수 매립은 민심 역행 제2의 경양방죽 매립이다', '장미공원 현상 유지, 이설은 세금낭비' 등 수십 개의 현수막이 설치돼 있었다. 또 일부에선 '풍암호수 매립반대, 장미공원 이전반대 대책위원회' 천막을 세워 주민들에게 서명도 받고 있었다. 그때 주민 대다수는 현수막과 서명운동을 보고 풍암호수가 매립돼 사라지는 줄 알았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중앙공원 주민협의체에 참여하게 되면서, 풍암호수가 매립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수질 개선을 위해 일정 부분 수심을 낮추고 친환경 호수공원으로 계획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대통령 각하, 만족하십니까

현장에서선 '자원봉사자 모집'이라 쓰고 '동원'으로 읽는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경영 평가자이고 국책 금융기관의 최대주주다. "이게 정상적인 정부냐"라는 공무원 노조에 장관은 "공무원들이 동원된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고 한다. 그래서 대통령의 디테일 지시로 시작된 'K 잼버리'의 속살은 '국가 총동원령 시대로의 복귀'라는 우려와 맞닿는다. 민간 자원을 징발하는 '국가주의적 행태'라는 비판도 있다. 사적 영역의 시민사회가 권력과 관료의 동원 대상으로 전락한 것이다. 기업들은 생산 148만 병, 열을 5만톤, 아이스크림 28만 개를 보냈다. 간이화장실 설치와 지원 인력 그리고 조기퇴역 후 후속제공도 그들의 몫이었다. '잼버리 대회 참여자 모두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게 한국인의 마음이다. K 잼버리는 '강요된 자발적 협조'에 기꺼이 함께해준 민간과 기업을 중심으로 한 국민적 잼버리 구하기 동참의 결과다. '권위주의적 과거로의 회귀'라는 걱정은 그동안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보여준 모습과 말들에 겹쳐진다. 결과물은 "존재감이 없다"는 대표와 "대통령실 대변인이 되었다"는 집권당에 대한 평가다. 미래의 시대 변화와 대통령 인식의 불화는 권력에 불리한 일이다. '잼버리 졸속행정'에 피해를 K리그"라고 쓰인 축구팬의 손팻말 시위와 "공공기관 인원을 차출해 강제 봉사활동을 하란다. 그것도 금요일 저녁에, 시대가 어느 때인데 자원봉사 명목으로 무급 노동을 시키는지"라는 온라인 게시판 글은 지금이 88 올림픽 시대가 아닌

을 웅변한다. "우선은 대화를 잘 치려야 한다"는 선의로 BTS와 축구경기장 사용을 언급했다가 팬들의 반발에 "왜 우리가 희생을 당해야 되냐. 잘못된 정부와 지자체가 해 놓고 왜 우리한테 그러느냐 이런 항변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며 괴리를 인정한 성일중·이홍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말도 시대 변화를 상징한다. 대통령이 나서야 움직이는 공공영역의 보신주의는 넘어야 한다. 총선 승리와 성공하는 권력을 향한 대통령의 시대와의 화해도 필요하다.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 시스템 복원이다. 사람이 아니라 절차와 제도 중심이며 책임과 권한의 재량이 인정되어야 한다. 둘째, 현장과 지역중심이다. 대회전부터 전북지역 언론은 걱정이 많았다고 한다. 투명하지도 않고 검증의 자신감도 없었으니 "텔타구역 벗어나면 취재협조가 어렵다"는 경고까지 등장한다. "주민의식을 갖고 현장을 쫓기 공무원이 더 많았다면..." 하고 탄식한다지만 앞으로도 "깨알지시의 대통령"이 계속된다면 곤란하다. 총리와 장관의 브리핑이 '대통령께서 지시한대로'로 시작하는 것은 자율과 책임의 부재다. 그들이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책임있는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게 대통령의 리더십이다. "한국정부의 문제해결 능력이 높았다"는 말을 전하는 총리와 "무난하게 마무리 되었다"는 대통령의 언급으로 '쌍팔년도식 동원'을 가릴 수는 없다. '야미'(BTS 팬클럽)와 '수호신'(FC서울 팬클럽)은 2023년식 금모으기 운동을 단호히 거부한다. 내년 총선에서 윤 대통령이 마주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이들이다.

잼버리 사태로 본 신앙인의 준비

난다. 당시 부모님은 없는 형편에 단복을 사 주셨고 입회비를 내 주셨다. 까맣까맣하지만 윤이 나는 네이비색 단복은 너무 멋졌고 노란색의 스카프를 둘둘 말아 목에 두르고 보이스카우트 후크로 목까지 조여주었다. 황금색 사자 후크도 있었던 거 같은데 기억이 가물 가물하다. 왼쪽 가슴에는 동물 계급장 같은 것을 달았고 다양한 배지도 있었던 거 같다. 타이즈를 신고 허리에 하얀 바지를 차고 모자까지 착용하면 이렇게 멋진 모습을 당시에는 쉽게 찾아보기 힘들었다. 첫 캠프를 학교에서 했는데 그때 배웠던 노래가 아직도 기억이 난다. 올해 들어 세계잼버리가 열리는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지 않았다. 여기저기서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잼버리를 시작하기도 전에 우려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 비춰졌다. 기대했지만 걱정과 한숨이 나오기 시작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가. 4년이라는 시간과 1000억 원에 가까운 막대한 자금이 쓰였다고 하는데 2023년을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의문에 의문을 더하며 고개가 갸웃거리고 믿어지지 않았다. 결국 일이 터져버려서 세계 각국에서 찾아온 많은 청소년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몇 나라는 아영지에서 철수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기가 막히고 분통이 터졌다. 뒤늦게 수습을 위해 정부는 아영지에서 조기 퇴영을 결정하고 그 많은 대원들을 각 지역으로 분산해서 문화를 체험하거나 관광을 하는 것으로 남은 일정은 메

웠다. 그리고 K팝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제25회 새만금 세계 보이스카우트 잼버리는 막을 내렸다. 한국 보이스카우트연맹 웹사이트에 들어가 살펴보니 보이스카우트 마크에 대한 설명이 예전 내가 알던 모양과 설명이 달랐다. 내가 가입할 당시 나눠준 수첩에는 마크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었는데 마크 하단쪽 보면 '스틸비'라는 글자가 있었다. 애초에 그 정신이 군대의 그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준비태세'는 언제나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의미였다. 새만금의 환경이 예상보다 힘들고 기후 문제가 불어닥친 태풍도 영향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고 예견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고 본다. 2015년 일본에서 개최된 세계잼버리도 간헐적이었고 쓰린 금액도 400억 원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 이 두 곳의 잼버리는 언제나 비교 대상이 될 것이다. 신앙성경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라고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준비된 신앙은 매우 중요한 믿음이다. 노아의 홍수 때에도 준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며 삶에 취해 있던 사람들이 나온다. 사죄한 이들이 잼버리를 성공적으로 치루는 것보다 자기사육에 눈이 먼 것은 아니었나 싶다. 닭들에게 모이를 던져주면 달려들어서 정성없이 쪼아 먹는데 모습이 오버랩 되는 것은 왜일까. 선악과를 먹고 다른 이에게 책임을 전가하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이번 세계잼버리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의 삶이나 신앙에 잘 적용해 보기를 바란다.

녹조라떼 풍암저수지, 명품 호수로 재탄생해야

유입해 자연정화하는 방식이다. 광주시 설명에 의하면 일산, 세종호수공원의 사례를 적용해 유지관리에 적합하도록 평균수심을 1.5m로 조정했고, 원수 공급량이 한정돼 있어 불가피하게 담수량은 약 15만톤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현재의 급경사 저수지 호안을 완만한 경사로 높혀 수질정화 식물을 식재하고, 자연형 습지를 통해 수질을 정화하는 방법도 도입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주민협의체 일부 회원들은 '사업자 이익을 위해 아파트 사토를 처리하고자 호수를 매립한다', '호수를 매립하기 위해 농어촌공사 토지를 광주시가 매입한다'는 등의 가짜뉴스를 사실인 양 목소리를 높여 주장하면서 광주시의 수질개선 방식에 반대해 왔다. 이에 광주시 도시공원과장은 직접 주민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풍암호수 수질개선 방식과 상관없이 민간공원 사업은 민간공원 사업자가 공영 전체 토지를 매입해 일부 구간(공영면적의 9%이내)에 비 공영시설 즉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나머지 토지를 시에 기부채납하는 사업임을 명확히 설명했다. 또 서구청 소유로 돼 있는 토지도 민간공원 사업자가 매입해 광주시에 기부채납한다는 설명 등도 상세히 덧붙였다. 이후 모든 주민협의체 회원은 풍암호수 수질개선 사업이 사업자 이익이 아닌 시민에게 쾌적한 휴게·여가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

게 됐다. 현재 주민협의체가 중심이 돼 사업자와 협의한 수정안은 담수량은 23만톤 내외, 수면적은 가능한 현 상태 유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장미원은 풍암호수 인근으로 옮겨 당초 면적보다 확대해 조성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호수 원형을 가꾸으면서도 수질과 환경은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개발 방식이다. 이러한 수정안을 주민협의체 회원들과 전 과정을 공유하면서 사업자와 협의의 통해 수정안을 도출했고, 이후 협의체 표결까지 이어졌지만 정치적 반대 세력의 방해로 원형보존에 가까운 개선된 수정안조차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어렵게 협의에 이른 수정안을 사업자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것처럼 선동·자극하면서 민심을 왜곡 호도하는 현 상황이 미래의 소중한 자산인 풍암호수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 이제는 불필요한 소모전을 멈추고, 주민협의체는 '원형보존'과 '수질개선 TF팀' 사이의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광주시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지역 주민들도 '제2의 경양방죽 매립'이니, '광주시가 풍암호수를 매립해 저수지가 사라진다'라는 등의 자극적이고 왜곡된 사실에 귀 기울이지 말고, 매년 수십억 원의 서구 재정을 투입해 현 저수량을 유지하는 게 무슨 가치가 있는지 등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社說

가격 폭락에 파산 속출...전북 어가 지원책은

전국 전북의 70% 이상을 생산하는 완도지역 전북 어민들의 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전북 가격 급락으로 근근이 버티던 어가들이 최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논란까지 겹쳐 소비가 위축되자 대물어지를 내지 못하는 한계 상황으로 내몰린 것이다. 완도군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파산을 신청한 전북 양식 어민은 총 60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져 채권자인 소안수협과 금일수협에 통보된 어민은 26명에 그쳤다. 문제는 파산 신청 대기자가 200~500여명에 달한다는 점이다. 완도군 노화와 보길의 경우 현재 전복을 키우는 800여 어가가운데 수협에서 대출 채권 관리가 안되는 어가는 200여 곳 이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매 물건으로 나오는 전복 양식 가두리 어장이 늘고 있다.

전복 어가들이 가격 폭락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은 소비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 때문이다. 전북 어가들의 과잉 생산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으로 소비가 급감하면서 인건비도 건지기 힘들 만큼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날 말기준, 전복 산지 가격은 큰 전복(kg당 8마리)은 2만 3217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5.5% 떨어졌다. 또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중간 크기 전복(kg당 12마리)은 1만 9739원으로 22.8% 하락했고 작은 전복(kg당 20마리)은 1만 5391원으로 19.5% 감소했다. 전북 가격 폭락은 완도뿐만 아니라 전남 어민들의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있다. 특히 오염수 방류가 본격화되면 수산물에 대한 소비 기피로 어민들의 미래가 막막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와 지자체는 어가들의 피해 실태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와 방산능 감시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도 넘은 '테마주 광풍' 쏠림 관리 철저해야

국내 주식시장에서 테마주 투자 광풍이 다시 불고 있다. 올해 들어 국내 주식시장은 17일 기준 코스피가 12%, 코스닥이 30% 가량 상승했다. 하지만 2차전지 관련주와 조전도체 관련주를 중심으로 10배 이상 급등하는 종목이 속출하면서 지수를 왜곡하고 있다. 특정 테마주 위주로 급등하면서 지수는 올랐는데 떨어지는 종목이 더 많은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투자자들의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증후군을 자극해 뒤늦게 묻지마식으로 테마주 투자에 뛰어들게 하고 있다. 다들 돈을 벌고 있는데 나만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테마주를 샀다가 큰 손실을 보는 재미(개인 투자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투자자들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발표한 '7월 광주·전남지역 증시 동향' 자료를 보면 지역 투자자의 지난 달 주식 거래대금

은 13조 4242억 원으로 전월 대비 70.6%인 5조 5574억 원이나 급증했다. 원인은 당시 테마주를 형성했던 2차전지 종목을 집중 투자했기 때문인데 관련 종목이 거래 상위를 점령했다. 요즘에는 조전도체 관련 종목이 테마주 광풍을 이끌고 있다. 국내 연구진의 조전도체 개발 소식이 전해진 이후 진위 공방 속에 뉴스에 따라 금동락을 반복하고 있다. 테마주 투자 광풍은 잊을만하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실적시즌이 아닌 과도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수익물에 목마른 개미들을 유혹해 물량을 떠넘기고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 묻지마식 테마주 투자에 대한 책임은 물론이려니와 투자자에게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테마주 쏠림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투자자에게 테마주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해야 한다.

無等鼓

'인비 슬램'이라는 제목으로 편집을 한 적이 있다. 2013년 박인비 선수가 미국 프로골프 LPGA 투어에서 메이저 대회인 차레로 석권하자 타이거 우즈의 '타이거 슬램'에 빗대어 썼다. 박인비는 LPGA 대회에서 21승을 하고 4대 메이저 대회를 제패하는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해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1998년 박세리가 US여자오픈에서 우승한 이후 한국 여자골프는 LPGA 투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해 왔다. 박인비 박성현 김세영 고진영 등이 각종 대회를 휩쓸며 LPGA를 지배했고, 2015년과 2019년에는 한 해 무려 15승씩을 거두고 세계랭킹 '톱 10'에 5명이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한국 여자골프가 흔들리고 있다. 올해 LPGA 투어에서 우승은 단 두 차례. 메이저 대회 우승은 없다. 지난해에도 4승에 그쳤다. 김세영 전인지 박성현 고진영 이정은6로 이어지던 '태극낭자'의 신인왕 계보도 '태극낭자'들에게 넘어간 지 오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세계랭킹이다. 163주간 1위 자리를 지켜왔던 고진영이 3위로 내려앉았고 김효주는 9위로 간신히 '톱

10'에 이름을 올렸다. 랭킹이 중요한 것은 내년 파리올림픽 출전 자격 때문이다. 상위 60위까지는 국가별로 2명씩 출전할 수 있고 15위 이내 선수들이 많으면 최대 4명이 출전 가능한다. 출전권 내장 확보에 비상이 걸려 메달에 대한 기대도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LPGA 팬들에게 반가운 소식도 있다. 2016년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골든슬램'의 주인공 박인비가 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한국 후보로 최종 선정됐다. 배구 김연경, 사격 진중오, 배드민턴 김소영, 태권도 이대훈과의 경쟁에서 압도적인 성적으로 대한체육회의 최종 낙점을 받은 것이다. 다가오는 파리올림픽에서 4대 1의 경쟁을 뚫으면 한국 첫 여성 위원이자 한국 골프가 처음으로 배출한 선수위원이 된다. 현 위원인 유승민의 조연처럼 출인원에게 도전한다는 각오로 뛰어든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올림픽 기간에 펼쳐질 IOC 위원 선거전에서 선수들의 표심을 사로잡을 '골프여제'의 친화력과 운영 능력을 기대한다. /유재관 편집담당1국장 jkyou@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phone numbers and website details.